

# “강진 사당리서 고려 왕실자기 한정 생산”

청자박물관 학술심포지엄

1960년대 발굴조사 토대 토론

하반기부터 사당리 일대 재발굴

고려청자하면 '전남 강진'이 최고였다는 사실을 1960년대에 가진 청자요지 발굴조사 결과로 증명하는 특별한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강진 사당리요지 자기제작의 실상과 특질'이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화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충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국내 주요 도자사 전공 학과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광주전남권 조사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고려청자 역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강진 사당리 요지에 대한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강진 주민은 물론 도자사 전문가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강진고려청자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진 사당리요지 자기제작의 실상과 특질' 학술심포지엄에서 이희관 전 호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이번 심포지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1964년부터 1970년까지 가진 강진군 대구면 강진청자박물관 내 고려청자박물관 좌측 땅에 대한 발굴조사를 토대로 출간된 2015년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희관 전(前) 호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강진중에서도 사당리

라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이곳의 청자가마가 고려왕실에서 필요했던 어용자기(御用瓷器)를 생산한 제약수색(製粉須色) 성격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실에서 필요한 그릇의 견본이나 도본(圖本)을 강진으로 보내 제한적으로 생산하고 왕실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체제였

다고 보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운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사당리내에서도 현재 고려청자박물관이 위치한 당전(堂前)마을에 있는 가마터들과 그 이외 가마터 출토유물의 성격이 상이한 점에 착안해 구분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신준 원광대학교 교수는 현재 부안 유천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참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강진 청자요지 발굴조사에서의 유익한 점에 대해 설명했다.

강진군은 올해 하반기에 이 지역을 포함해 더 넓은 면적으로 전면 재발굴 조사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심포지엄은 발굴조사의 방향과 주안점에 대해 사전검토 했다.

김국경 강진고려청자박물관장은 “강진고려청자박물관이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는 사당리20호와 사당리33호 청자요지 발굴유물도 이관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고려청자 연구를 위해 강진 청자요지 유물 확보 등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문화교류를 위해 영암군을 찾은 서울 영등포구 어린이 문화체험단이 도자기 빚기 체험에 앞서 강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영암군 제공>

## 영등포구 어린이 문화체험단 영암군 찾아 교류활동

영암군과 자매도시인 서울 영등포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4~6학년 을 대상으로 어린이 문화체험단을 구성해 영암군을 찾아 교류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의 초청으로 지난 달 25일부터 27일까지 영암 어린이 문화체험단이 서울을 찾아 도시문화 등을 견학·체험한 데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졌다.

영등포구 어린이 문화체험단 15명은 지난 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영암군 을 방문해 영암군 어린이 문화체험단 과 함께 목재문화체험과 왕인박사유적지 견학, 도기빚기 체험, 氣잔랜드 물놀이, F1 경주장 등을 견학하며 우의를 다졌다.

영암군 관계자는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영등포구와 영암의 어린이 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도농간 문화를 비 교체험하고 추억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영등포구와 1995년 자매결연을 맺고 민간교류의 일환으로 매년 어린이 문화체험단 상호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하고 왕인문화축제와 여의도 봄꽃축제, 군민의날, 구민의날 등 각종 행사에도 상호 방문하는 등 도시와 농촌간 우호증진과 상생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 ‘농산업창업 아카데미’ 강진군 심화반 개강

강진군은 최근 지역농산물 가공 기술을 갖춘 창업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산업창업아카데미 심화반’을 개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열린 개강식에는 국 내전문가와 교육생,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농산업창업아카데미는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위해 기초와 심화반으로 나뉘어 9월까지 진행된다. 농산업창업에 필요한 식품가공 이론과 위생관리, 창업방법에 대해 맞춤형 수업이 이뤄진다.

특히 심화반 교육은 군이 지난해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을 통해 준공한 농산업창업아카데미센터 운영을 위한 가공창업인력 및 법인 육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농산업가공창업을 통해 강진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국 최초로 귀농자 지원 조례를 지정하고 최근 10년간 귀농 인구가 28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농업분야 창업에 최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 무더위 날린 장흥물축제...48만명 즐겼다

폭염 속 7일 일정 막내려

살수대첩·워터 락 큰 인기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준 장흥물축제가 2일 막을 내렸다.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 장흥물축제에는 7일간 48만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지만 시원한 물을 주제로 축제가 열려 외국인 관광객들 등 오히려 구름 인파가 몰렸다.

지난달 28일 펼쳐진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에는 1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장관을 이뤘다. 올해는 명랑해전의 출발지인 장흥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명랑의 시작, 12척의 기적을 더하다’를 주제로 펼쳐져 의미를 더했다.

‘워터 락 풀파티’는 열대야를 날리는 시원한 공연으로 젊은이와 외국인의 인기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지만 장흥물축제에는 7일간 48만명이 축제를 찾은 등 구름인파가 몰렸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몸에 받았다. 소다, 워터, 춘차 등 국내 유명 DJ가 차례로 출연해 시원한 무대를 연출했다. 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준급이면서도 입장료가 없고, 유명 DJ들이 라인업을 구성해 인기를 끌었다.

지상 최대의 물싸움과 수중줄다리기, 물풍선 싸움도 펼쳐졌다. 장흥군은 축제 수익금 가운데 공공요금 정산 금액을 제외한 3000만원을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 4대 부정부패 근절...장흥군 공직 쇄신 고삐

장흥군이 공직자 부정부패에 관용 없는 강력한 처분을 예고하는 등 공직기강 쇄신 활동에 나서 주목된다.

5일 장흥군에 따르면 정준순 장흥군수는 최근 부정부패한 구조를 바로잡아 청렴

한 장흥을 바로 세울 것을 표명했다. 정 군수는 금품·향우수수, 금품횡령·유용·배임, 음주운전,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4대 적결대상으로 천명했다.

4대 비위 대상에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

는 강력한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주요 비위 발생 시 비위 정도를 불문하고 직위해제와 보직박탈, 인사 불이익 등 강력한 징계 적용할 방침이다.

무사안일과 소극 행정행위로 흔쾌히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온정주의를 넘어 강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 영암농협, 경희한의대와 한방의료봉사

주민 500여명 상담·진료

영암농협(조합장 박도상)은 경희대 한의학과와 함께 조합원 및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까지 5일간 하나마트 2층 대회의실에서 의료봉사활동<사진>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봉사진료에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소속회 이진무 교수 등 40여명의 의료진이 참여했다.

조합원들과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와 침구, 부항 등의

한방의료 서비스와 한방무료상담을 제공했다.

이진무 교수는 “힘드신 농사일에 무릎과 허리, 근육 등 관절계통의 진료가 많다”며 “우리의 진료가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 다음에도 방문해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도상 영암농협 조합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분들이 찾아 진료를 받고 만족해하니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의료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